

[ 서울회의장 ]





[ 서울회의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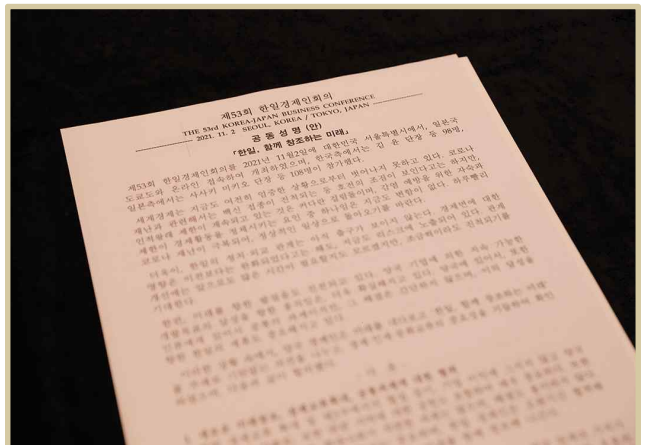


[ 서울회의장 ]





[ 서울회의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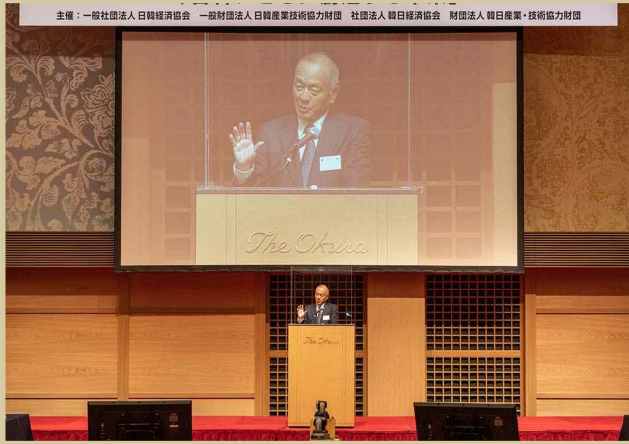


[ 도쿄회의장 ]





[ 도쿄회의장 ]





## [부록 1]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언론기사 모음

#### 【한국】

##### ■ 일간지(지면보도)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아주경제 디지털타임즈 내일신문

##### ■ 온라인 기사 리스트

조선비즈 뉴스웨이 비즈니스포스트 신아일보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즈 브릿지경제 뉴시스 뉴스핌 이코노미톡 퍼블릭뉴스 위클리오늘 이데일리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디지털타임즈 세계일보 아주경제 전자신문 헤럴드경제 브릿지경제 연합인포맥스 연합뉴스 뉴스1 데일리한국 데일리안 로이슈 쿠키뉴스 머니S 서울뉴스통신 뉴스웍스 글로벌경제 매일경제TV 아이뉴스24 메가경제 현대경제신문 팩스넷뉴스 중소기업신문 스카이데일리 더퍼스트미디어 EBN 굿모닝경제 여성소비자신문 이코노텔링

#### 【일본】

NHKニュース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중앙일보일본어판 연합뉴스 시사통신 와우 코리아

※ 온라인 보도 79건, 지면기사 7건







## “한일 경제 협력 플랫폼 구축해 교류 확대”

### 한일경제인회의 비대면 개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 협력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양국 경제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도쿄 오키다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협력 관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 외교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단장으로 참석한 김윤 한일경제협회

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경제인들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9년 첫 회의 이래 한번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는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14.2\*8.7)cm



# “한일, 파트너십 강화해 미래 창조해야”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양국 경제인 등 200명 참석

## “인재풀 만들어 취업난 해소”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다.

2일 한일경제협회는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개최 이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

류의 ‘등불’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한 차례의 중단도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 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은 “한일 양국

은 모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기조 연설에 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한일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친다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구 기자

(17.9\*9.3)cm



## 온라인으로 열린 韓日경제인회의

# 김윤 “파트너십 강화” ... 최태원 “협력 플랫폼 만들자”

〈삼양홀딩스 회장〉

〈SK그룹 회장〉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이 모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전환(DX)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민간 협력만큼은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일경제협회는 2일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한 이번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장을 맡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98명이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일본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등 108명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은 경색된 외교 관계 속에서도 기업간 협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일 간 외교 경색에도 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이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허문찬 기자

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과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지만 지혜와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일자리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경제계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양국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17.3\*13.9)cm

# 김윤 “韓·日,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해야”

〈한일경제협회장〉

“경제인 교류 위해 정부 지원해야”  
사사키 일한경제협회장도 협력 촉구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간 외교 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는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이 2일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일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은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됐다”며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협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교 관계가 악화일로로 걷고 있지만 이같은 민간 협력이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기조연설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경제계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양국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등 98명이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일본에서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108명이 참석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 디지털타임스

(17.9\*12.4)cm  
2021년 11월 03일  
08면 (정책)

# 韓日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관계개선·경제협력 논의

한일경제인회의 온라인 개최  
한국측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심도 있는 논의·협력 지원”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비대면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1969년 시작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회의를 지속해 왔다. 올해 회의 주제는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였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하여,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해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코로나 경제회복의)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

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총 98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미키오 회장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108명이 참가했다.

박정일기자 comia77@

(22.5\*8.7)cm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양홀딩스 제공]

## 한일 재계, 경제협력 강화 논의 화상으로 ESG·DX 협력 다짐

한국과 일본의 재계 리더들이 화상으로 만나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인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디지털전환(DX)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일경제협회는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과 도쿄 오후라도쿄호텔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정치외교 관계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도 멈춤 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고,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마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양국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협업은 경제계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환경 문제, 양국 교역 규모 축소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안 사회는 양극화하고 국가 간의 장벽은 심화하며, 환경 전체가 파괴돼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7.2\*28.1)cm

# 한일경제인 “함께 미래 열어가자”

## 한일경제인회의 화상 개최 최태원, 협력 플랫폼 제안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2일 화상으로 만나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과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1969년부터 해마다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 위기 등에도 중단없이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이어왔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정치·외교 관계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도 멈춤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 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고,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양국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협업은 경제계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탈탄소 사회로 전환, 디지털 전환 등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과제 해결은 간단하진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사회 양극화, 환경 문제, 양국 교역 규모 축소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노력은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안 사회는 양극화하고 국가 간의 장벽은 심화하며, 환경 전체가 파괴돼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의 복잡성을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 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인들은 코로나19를 극복

하고 정상 일상이 돌아오길 기대하며 양국이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서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지만 국제 공조는 중요하다”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회장을 비롯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일 경제인 회의 참석한 여한구-김윤-아이보시 고이치

등록 2021.11.02 15:13:16

☐ ☐ ☐ ☐ 가 가



[서울=뉴스시스] 홍효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 경제인 회의에 참석한 여한구(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자리하고 있다. 2021.11.02. yesphoto@newsis.com

# 디지털타임스

## [포토] 한일경제인회의 참석하는 여한구-아이보시 고이치

박동욱 기자 | 입력: 2021-11-02 15:49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dt.co.kr





# 여한구-아이보시 고이치, 한일 양국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 논의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4:21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면담을 갖고, 아·태 통상협력 강화와 한일 양국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02 photo@newspim.com

# 여한구 본부장,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통 상협력 강화 등 협의

발행일 : 2021.11.02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경제교류 확대와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196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서울과 도쿄 행사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50여년간 한·일 양국이 주력 산업 분야에서 유기적 분업 관계를 맺고,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면서 “코로나19 위기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 본부장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핵심 분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공동체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등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와 동시 개최된 '한일 산업기술페어 2021'에는 양국 기업인 250여명이 참여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비즈니스 상담회, 일

본 우수기술자 매칭을 통한 기술지도 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아이보시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내외 어려움에도 미래 발전을 위한 양국 경제협력과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및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 대상 투자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작년 동기 대비 33.8% 증가(7억3000만달러, 신고 기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긍정 평가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다자주의 회복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태지역 통상질서 변화에 상호 공조해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 기업인들의 일본 방문이 제한돼 양국 기업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업인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 여한구 "韓·日, 공급망 안정·탄소중립 위해 경험 강화해야"

등록 2021.11.02 11:00:00



## 기사내용 요약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  
日대사에게 통상 변화 공조 당부

[세종=뉴스시스] 고은결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핵심 분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린에너지 분야 등을 꼽았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일 간 민간 경제협의체인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지난 1969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로 53회째를 맞았다.

양국 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서울-도쿄 행사장 간 온라인 연결로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 50여년간 한일 양국이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분업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와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협력이 더욱 공고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등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도 접견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과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및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3.8% 늘어나는 등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다자주의 회복을 위해 양국이 공조해야 한다며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 협정 등 아·태지역 통상질서 변화에 상호 공조해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여 본부장은 한국 기업인들의 일본 방문이 제한되고 있어 양국 기업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업인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내빈인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 &gt; 기업

## 최태원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 구축해 양국 관계 회복해야”

이윤정 기자

입력 2021.11.02 16:19

🔊 📌 📄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놔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에도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2일 한일경제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주) 부회장, 장동현 SK(주)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측사),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한국 단장, 개최인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측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한일경제회의 제공



현재 미국·유럽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약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노력은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안 사회는 양극화하고 국가 간의 장벽은 심화하며, 환경 전체가 파괴돼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의 복잡성을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 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개별 기업의 협력만으로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국 경제계 전체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예컨대 한국은 일자리 부족, 일본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만큼 취업비자 요건 완화, 합동 구인 플랫폼 운영, 취업 박람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간 인력 교류로 당장 협력할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 외교적인 관계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경제인들은 아직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멈춤 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해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①

기업정책

## 한일경제협회 한일경제인회의 열어, 최태원 “협력 플랫폼 구축해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 2021-11-02 19:04:4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과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경제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가자는 제안”이라며 “개별 기업 사이 협력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해외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했다.

최 회장은 “직면한 사회와 경제문제의 복잡성을 보면 현재 이뤄지는 기업 사이 개별적 협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와 외교적 관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서에서 “한일관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며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 대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이어온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포토]여한구 본부장-김윤 회장-고이치 대사, 제 53회 한일경제인회의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부터)과 김윤 한일 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박동욱기자 fufus@dt.co.kr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산업 ▾

## 최태원 “韓·日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하자”

이지숙 기자 등록 2021.11.02 17:27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강연 나서  
“사회적 책임 위해 경제계가 힘 합쳐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영상 기조연설에 나섰다.

최 회장은 “지금 한일 관계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며 “민감한 국가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인들간의 소통도 꼭 막혀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단하고 시원한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계 차원의 작은 해법을 찾아볼 기회마저 아예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된다”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인으로서 가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현재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고객과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있어야 기업도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의 복잡성에 비춰볼 때 현재와 같이 ‘개별 기업간의 협력’ 만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저는 이 시점에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협력 방안 중 하나로 ‘일자리 문제’를 제시했다. 한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으나 일본은 경제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취업 비자 요건 개선, 한일 합동 구인 플랫폼 운영, 취업 박람회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개별 기업간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며 “포럼, 협의체, 재단 등 어떤 방식이 되었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원컨대, 정치·외교적인 관계 복원에도 역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 경영자들이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 산업·IT

기업·CEO

중기·벤처

자동차

유통

IT·통합

과학

4차산업

전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산업·IT

기업·CEO

중기·벤처

자동차

유통

IT·통합

과학

4차산업

전체

김윤(가운데) 한일경제협회 회장,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 aymdream@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 aymdream@

# 디지털타임스

경제 산업 ICT과학 금융 증권 부동산 피플 방송연예 오피니언 동영상

[포토]한일경제인회의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김윤 회장-코이치 주  
한일본대사

[포토] 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인협회장

박동욱 기자 | 입력: 2021-11-02 15:50



김윤 한일경제인협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dt.co.kr







## [Bфото]'53년간 멈춤없는 협력다짐'... 한일경제인 회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중구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경제협회는 2일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영상 참석),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일본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108명이 참석했다.

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53회 한일 경제인 회의 기념촬영

등록 2021.11.02 15:24:53



[서울=뉴스시스] 홍효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 경제인 회의에 참석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02. yesphoto@newsis.com

## 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4:53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4:5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2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02 kilroy023@newspim.com

# 일본과 화상회의로 열린 53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4:53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4:5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 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2





## [포토] 제53회 한일경제회의의 개회식 개최

✎ 김윤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 승인 2021.11.02 16:18 | ▢ 댓글 0



좌로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김윤 한일경제 협회 회장(한국 단장, 개회인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축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사진=SAMYANG HOLDINGS)

[김윤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일 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회식에서 양측 내빈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촬영을 했다.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

## [포토]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식

✎ 김선영 기자 | ☎ 입력 2021.11.02 16:46 | 💬 댓글 0



좌로부터 이휘령 세아제강(株) 부회장, 장동현 SK(株)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김윤 한일경제 협회 회장(한국 단장, 개회인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축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식이 열렸다.

2일 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양측 내빈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촬영을 했다.

출처 : 퍼블릭뉴스(<http://www.psnews.co.kr>)

#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공동성명 발표

✎ 이연숙 기자 | ⌚ 입력 2021.11.02 17:55 | ⌚ 수정 2021.11.02 17:57 | 💬 댓글 0

##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화상으로 열려



▲좌로부터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일본 단장, 개회인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기조연설). (사진=삼양홀딩스 제공)

[위클리오늘=이연숙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한국대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코로나 재난이 극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열어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2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새로운 미래 창조, 경제교류 확대, 공통과제 등에 대한 협력을 담았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에서 "한일의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을 포함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성명서에는 양국 정부에 대해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호소도 담았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양국에서 화상방식으로 진행된 한일 경제인 회의는 2022년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이데일리

## 입 모은 韓日 경제인 "새로운 미래창조·경제교류 확대하자"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탈탄소 등 과제들, 국제 공조하자"

등록 2021-11-02 오후 5:30:47  
수정 2021-11-02 오후 5:36:27

가 가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운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이 새로운 미래 창조, 경제교류 확대, 공동과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일경제인연합회는 2일 서울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열자고 입을 모았다.

양국은 특히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

도 국제공조는 중요하다”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 했다.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상호 발전을 위해 경제·문화 교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9년부터 단 한번 중단없이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는 서울과 도쿄 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 대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306200]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회장을 비롯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뉴스 > 경제 > 산업

## “한일 경제 협력 플랫폼 구축해 교류 확대”

임현석 기자    입력 2021-11-03 03:00    수정 2021-11-03 10:14

### Ⅱ 한일경제인회의 비대면 개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 협력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양국 경제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협력 관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 외교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단장으로 참석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경제인들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9년 첫 회의 이래 한번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는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한일, 파트너십 강화해 미래 창조해야"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양국 경제인 등 200명 참석  
"인재풀 만들어 취업난 해소"

박윤구 기자 | 입력 : 2021.11.02 17:33:15 수정 : 2021.11.02 23:05:58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다.

2일 한일경제협회회는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개최 이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한 차례의 중단도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 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기조연설에 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한일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친다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구 기자]



## 김윤 "파트너십 강화"...최태원 "협력 플랫폼 만들자"

한경ESG

황정환 기자

입력 2021.11.02 18:08 | 수정 2021.11.03 00:13 | 지면 A32

### Ⅱ 온라인으로 열린 韓日경제인회의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허문찬 기자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이 모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전환(DX)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민간 협력만큼은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일경제협회는 2일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한 이번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장을 맡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98명이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일본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등 108명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은 경색된 외교 관계 속에서도 기업 간 협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일 간 외교 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이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과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지만 지혜와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경제

산업 > 기업

##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해야”

입력 2021-11-02 14:50:08 수정 2021.11.02 16:59:21 임진혁 기자

53회 한일경제인회의

김윤 “외교경색 안타까워, 파트너십 강화”

사사키 “교류 확대, 경쟁력 높이고 발전”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0HICSV>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재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제공=한일경제협회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전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디지털전환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는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은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됐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협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 같은 민간 협력이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기조연설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경제계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양국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등 98명이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일본에서는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108명이 참석했다.



이휘령(왼쪽부터) 세아제강(주) 부회장과 장동현 SK(주)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재계 인사들과 나란히 서 있다. 양국 기업인들은 외교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진제공=한일경제협회

##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양국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2021.11.02 15:32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측 단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일경제협회

한일경제협회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인은 서울과 도쿄를 웹 회의 시스템으로 잇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 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바가 많고 공통 난제에 직면해 있기에 가능한 최대의 협력관계가 필요함에도 지난 과거사에 상당 부분 정체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세대가 풀어야만 할 현안을 미래로 넘기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니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 계기로 해결책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 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또 "한일 양국은 모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3회 회의에 한국 측에선 김 회장을 비롯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70,300원 상승1200 -1.7%)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99,900원 상승2100 -2.1%) 부회장, 장동현 SK (248,000원 상승500 -0.2%) 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회장 외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 최태원 상의 회장 “비정상적 한일관계…경제계 차원 협력플랫폼 꾸리자”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국가적 갈등에 경제인 소통도 짝 막혀"

"사회문제 해결시 정치·외교 문제도 복원"

등록 2021-11-02 오후 3:28:47 수정 2021-11-02 오후 3:32:19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해 개별기업 간 협력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서울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안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국가 간 장벽이 심화되고, 환경 전체가 파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 회장은 양국이 외교·정치적 문제로 단절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한일 관계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며 “민감한 국가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인들 간의 소통도 짝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띄웠다.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수출 규제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지난 6월까지 9.8%나 감소했다.

그는 “경제계 차원의 작은 해법을 찾아볼 기회마저 아예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스럽다”면서 “경제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기업인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현재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면서 “현재 넘쳐나고 있는 유동성을 활용해 경제인들의 본분과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개별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양극화, 환경 문제 등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각자의 이윤 추구는 단기적으로 개별 기업들에 혜택을 주겠지만, 양국 발전에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고객과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있어야 기업도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양국 경제계 협력의 예로 ‘일자리’ 문제를 거론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경제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이 여실히 부족하다”면서 “취업비자 요건을 개선해서 양국이 우수한 청년들을 채용하고, 한일 합동 구인플랫폼을 운영하고 취업 박람회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간 전문인력을 교류하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포럼, 협의체, 재단 등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향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단장으로 참석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인사말로 “한일 경제인들이 아직 출구 전략을 찾기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안타깝다”면서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 계기로 한일 경제인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일본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전 미쓰비시상사 회장도 “최악의 한일 관계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편으로 한일 경제인 상호 신뢰는 흔들림없는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 탄소사회 전환 등 간단치 않은 과제에 대해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상호 발전을 위해 경제·문화 교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9년부터 단 한번 중단없이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는 서울과 도쿄 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번째)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네번째)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 대사 등이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태원 "韓日 경제계 협력 플랫폼 구축" 韓日 공동성명 발표(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2 17:20 수정 2021.11.02 17:19

### 한일경제인회의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한일간 단절된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는 개별 기업 간 협력 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양극화 심화, 고령화, 저출산, 고용률, 자살률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유동성을 활용 해야 한다"며 "개별기업의 이윤추구 및 개별 기업간의 협력에서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협력 사례로는 일자리 문제 해법 등을 제시 했다. 양국이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교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과 도쿄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서도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김 회장은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김영권 기자



한국일보

# 한일 경제인들, "새로운 미래 창조 위해 협력하자" 한 목소리

입력 2021.11.02 20:40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 경제인 회의에 참석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2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 회복과, 새로운 미래 창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이날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라는 회의 슬로건에 걸맞게 코로나19 재난이 극복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열어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경제인은 공동성명에서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며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는 중요하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양국 경제계에 사회·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

력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럽을 순방 중인 최 회장은 영상을 통해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경제인으로서 가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 한일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관계개선·경제협력 논의

박정일 기자 | 입력: 2021-11-02 19:44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운 한일경제협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박동욱기자 fufus@

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비대면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1969년 시작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회의를 지속해 왔다. 올해 회의 주제는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였다.

한국 측 단장인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하여,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해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코로나 경제회복의)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총 98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미키오 회장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108명이 참가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 한일 경제인 "새로운 미래 창조... 원활한 왕래 하루빨리 재개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1-02 20:27:54 | 수정 : 2021-11-02 20:27:53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한일경제협회 제공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양국의 유대 강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 창조와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한일경제협회는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과 일본 도쿄 오키다도쿄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에서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치적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양국 정부를 향해서도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하여,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 전환

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모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안 사회는 양극화하고 국가 간의장벽은 심화하며, 환경 전체가 파괴돼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의 복잡성을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 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돼 한국 측에서는 김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등 108명이 참석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한·일 재계, 경제협력 강화 논의...ESG·DX 협력 다짐

윤동 기자 | 입력 : 2021-11-02 16:15

한국과 일본의 재계 리더들이 화상으로 만나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인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디지털전환(DX)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일경제협회는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과 도쿄 오후라도쿄호텔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정치·외교 관계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도 멈춤 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고,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양홀딩스 제공]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 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양국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협업은 경제계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환경 문제, 양국 교역 규모 축소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안 사회는 양극화하고 국가 간의 장벽은 심화하며, 환경 전체가 파괴돼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일 경제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필요"...최태원, 협력 플랫폼 제안

발행일 : 2021.11.02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화상으로 만나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플랫폼을 제안, 지속 가능한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과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한일 경제인들은 1969년부터 매년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 위기 등에도 중단없이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이어왔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정치·외교 관계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도 멈춤 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고,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양국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협업은 경제계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탈탄소 사회로 전환, 디지털 전환 등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과제 해결은 간단하진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의 노력은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안 사회는 양극화하고 국가 간의 장벽은 심화하며, 환경 전체가 파괴돼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의 복잡성을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 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면서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회장을 비롯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 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산업일반

## 한일 경제인 "출구 안 보이는 한일 관계...정치·외교 개선되길"

2021.11.02 17:27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화상으로 열려  
"교류 확대·경제 협력" 공동성명 발표  
내년 회의는 일본에서 정상 개최기로



2일 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회식에 참석한 이휘령 세아제강(株) 부회장, 장동현 SK(株)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한국 단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삼양홀딩스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에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일 정치·외교 관계의 조속한 복구를 요청했다.

한일 경제인 200여명은 2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회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에서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제에 대한 영향은 이전보다는 완화됐다고 해도 지금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해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막힌 기업인 왕래가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대책을 간절히 바란다는 호소도 담겼다.

한일 경제인들은 "백신 접종이 진척되는 등 호전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인적왕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걸림돌이며 감염 예방을 위한 자숙과 제한이 경제 활동을 정체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탈탄소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는 중요하다"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양국에서 화상방식으로 진행된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에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joze@heraldcorp.com

## 최태원 "한일 경제인, 미래세대 위해 협력"...한일 경제인회의, '함께 창조하는 미래' 공동성명

제53회 한일경제회의의 서울과 도쿄서 동시 개최  
한일 경제인 공동성명 발표

입력 2021-11-02 17:30 | 신문게재 2021-11-03 1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삼양홀딩스)

최태원 회장이 “한일 양국 기업 전체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협력 방안 등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면 양국 관계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2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동시에 개최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 한국 측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한일 양국의 정치·사회적 민감한 사안으로 경제계 차원의 작은 해법마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인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양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유동성은 넘쳐난다”면서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많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문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코로나19 재난이 극복돼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미래 창조, 경제교류 확대, 공동과제 등에 대한 협력을 성명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면서, “이런 면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는 중요하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인들은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각각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는 20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이 참석해 이원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열렸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계 전체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기조연설 동영상을 통해 한일 경제계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미국 일정을 시작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 최태원 회장은 유럽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순방단과 합류해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온라인 동영상 기조연설로 한일경제인 회의 참석을 갈음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와 양국 정부 갈등 등으로 경제인과의 소통도 막혀 있다"며 "한일 모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2020년 2분기 한일 무역 규모는 2019년 2분기보다 15.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한일 양국 기업의 협력 관계는 기업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기"라며 "이러한 관계가 양국 관계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도움일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개별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동안 국가 간의 장벽은 높아지고 환경 파괴는 심화했다"며 "고객과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있어야 기업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개별 기업의 협력만으로는 국가적 문제에 한계가 있다"며 양국 경제계 전체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예컨대 한국은 일자리 부족, 일본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만큼 취업비자 요건 완화, 합동 구인 플랫폼 운영, 취업 박람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간 인력 교류로 당장 협력할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 외교적인 관계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9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된 한일경제인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과 일본 도쿄를 연결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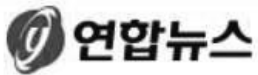
올해 회의는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 조석희 TCC 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김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하여,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모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yglee2@yna.co.kr



## 한일경제인 "함께 창조하는 미래 열어가자" 최태원, 협력 플랫폼 제안(종합)

송고시간 | 2021-11-02 18:12



김영신 기자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화상 개최...공동 성명 채택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2일 화상으로 만나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과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1969년부터 해마다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 위기 등에도 중단없이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이어왔다.



#### '한일 경제발전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회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2021.11.2 saba@yna.co.kr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정치·외교 관계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도 멈춤 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고,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양국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협업은 경제계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탈탄소 사회로 전환, 디지털 전환 등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과제 해결은 간단하진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일 경제발전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2021.11.2 saba@yna.co.kr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사회 양극화, 환경 문제, 양국 교역 규모 축소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노력은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안 사회는 양극화하고 국가 간의 장벽은 심화하며, 환경 전체가 파괴돼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의 복잡성을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 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인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 일상이 돌아오길 기대하며 양국이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서에서 "한일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일 경제교류 확대와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와 사회 공헌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지만 국제 공조는 중요하다"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306200]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002710]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회장을 비롯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 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shiny@yna.co.kr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열려...김윤 회장 "외교경색 안타까워...경제인 긴밀 협력 미래 창조"

기조연설 최태원 회장 "양국 기업 전체 차원 미래세대 위해 협력"  
서울·도쿄 온라인 이원 중계

입력 2021-11-02 15:00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삼양홀딩스)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2일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올해로 제53회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각각 행사장을 마련하고 이원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등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양 국에서 자리를 빛냈다. 또한 한국 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그룹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동행으로 동영상 연설로 대신했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은 직접 회의장을 찾아 자리를 함께 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하여,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접근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국 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태원 회장은 “코로나19로 두 나라 모두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고 전제한 뒤, “한일 양국의 정치·사회적 민감한 사안으로 경제계 차원의 작은 해법마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인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장기적으로 양국 발전을 위해 개별 기업간의 차원이 아닌 양국 기업 전체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협력 방안 등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면 양국 관계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4년 후인 1969년 첫 회의 개최 후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간교류의 등불을 지키자’는 취지로 지금까지 한번도 중단 없이 지속돼 왔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개최됐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 한·일 최고경영자 한자리에...김윤 회장 "전략적 파트너십 더욱 강화해야"

최성수 기자 choiss@hankooki.com 승인 2021.11.02 15:31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주) 부회장, 장동현 SK(주)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사진=한일경제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2일 “한일 양국이 오랜기간 협력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바가 많고, 공통의 난제에 직면해 있기에 가능한 최대의 협력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사에 상당 부분 정체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 세대가 풀어야만 할 현안을 미래로 넘기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니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모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3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총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韓·日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하자"

입력 2021.11.02 16:12 수정 2021.11.02 16:1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 제53회 한일경제인회 영상 기조연설... "韓·日,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 보여야" "양국 기업인과 경제단체 힘 모은다면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2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개별 기업간 협력 관계 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최 회장은 현재 한일 관계를 언급하며 "두 나라 모두 지난 2년간 팬데믹의 유례없는 위협과 길고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가와 사회는 단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겹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론 한일 양국 기업들이 이미 많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할 분들도 계실 것"이라면서 "지금의 노력들은 서로의 이해 관계만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 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고객과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있어야 기업도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현재와 같이 개별 기업간의 협력만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기업인들과 경제 단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기존에는 불가능하다 여겨왔던 고질적 사회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양국 기업인들의 대승적 협력이 없다면 앞으로도 기업들은 그저 기회나 보고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데 급급한 존재라는 현재의 인식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양국 경제인 협력 방안 중 하나로 '일자리 문제'를 들었다. 그는 "한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수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잘 갖춰진 경제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들이 여실히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 해결방안으로 그는 취업 비자 요건 개선, 한일 합동 구인 플랫폼 운영, 취업 박람회 활성화, 기업간 전문 인력 교류 등을 들었다.

최 회장은 "제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 정도인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친다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개선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외교적인 관계 복원에도 역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 경영자들이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영상 기조연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 로이슈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기사입력:2021-11-02 14:23:00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하여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 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면에 대한 영향은 이전보다는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지금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경제인은 서울과 도쿄를 웹 회의 시스템으로 잇는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멈춤 없는 협력을 이어나갔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하여,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일 경제계 플랫폼 구축하자”

황인성 / 기사승인 : 2021-11-02 17:07:10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기조연설서 제안 “협력 지속해야” 한일 경제인 공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경제계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사진=황인성 기자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과 양국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경제계의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단에 합류하면서 회의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했다.

최 회장은 양국 경제계 차원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자는 의견을 냈다. 포럼, 협의체, 재단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국 경제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자는 제안이다.

최 회장은 “한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은 부족한 일자리로 고통받고 있지만, 일본은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들이 부족하다”며 “양국 경제계의 공동 플랫폼을 활용해 젊은 인력을 교류하고, 취업비자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다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양국의 고질적인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더 많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 간 협력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서 양국 경제계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하자는 의미”라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양국의 사회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상당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인들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 동시에 열렸다.

지난 1969년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왔으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화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일본에서는 오쿠라 도쿄 프레ستی지 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양국 경제계를 대표해 기조연설을 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한일 양국은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공통의 난제에 직면해 있어 최대의 협력관계가 필요함에도 지난 과거사에 상당 부분 정체돼 있다”며, “우리 세대가 풀어야만 할 현안을 미래로 넘기는 것은 옳지 않고,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고, 특히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사 회장) 모습. 사진제공=한일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최악이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일 양국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비롯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는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에서는 기조연설자로 나선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은 한일 양국 경제계가 협력해온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제 논의를 넘어 실천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부회장은 “1969년 시작한 한일경제인회의가 단 한 차례 중단 없이 개최됐다는 사실은 꽤 의미가 깊고, 그동안 협력으로 맺은 양국 경제계의 결과물도 많다”며 “한일 양국의 경제교류 축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는 양국 경제계가 적극 나서 행동으로 이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양국의 많은 경제인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삼양사 회장) 회장을 단장으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

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his1104@kukinews.com

## 한·일 최고경영자 총집합...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전략적 파트너십 필요"

머니S 권가림 기자 | 입력 : 2021.11.02 16:56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열린 한일경제협회에는 각국의 최고경영자 등 206명이 참여해 미래를 논의했다. 한국측 단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양홀딩스

한국과 일본의 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의 입출국이 제한되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외교경색이 안타깝다”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며 “양국은 국제공조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자”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양국 경제인의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온라인 동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모두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2분기 한일 무역 규모는 2019년 2분기보다 15.6% 감소했다"며 "지금 한·일 양국 기업의 협력 관계는 기업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 경제계 전체의 협력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일자리 부족, 일본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만큼 취업비자 요건 완화, 합동 구인 플랫폼 운영, 취업 박람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간 인력 교류로 당장 협력할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인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 "韓日, 함께 창조하는 미래"...'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성명 발표

✎ 이민희 기자 | ⓒ 승인 2021.11.03 03:06 | 🔍 댓글 0

🖨️ 📄 📌

오랜기간 굳건한 파트너십 바탕 '새 미래 함께 창조'  
이동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디지털 혁신' 발표  
모리야마 토모유키, '한국에서 일본기업 활동상황' 보고



2일 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 양측 내빈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주) 부회장, 장동현 SK(주)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한국 단장, 개회인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축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서울=서울뉴스통신】이민희 기자 =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

2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한일 양국 경제인회의에 참석한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랜 기간 협력 해 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온·오프 방식으로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과 실시간 이원방송으로 열린 회의에 한일 양국 경제인(한국대표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대표단은 코로나 재난이 극복돼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열자는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공동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일본측 대표로 개회사를 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 감으로 연결돼 있으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경제·인재·문화교류의 내실화·확대"를 언급했다.

기조연설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대표이사 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주) 회장이 맡았다.

경제계의 역할을 강조한 최태원 회장은 "개별기업의 이윤추구 및 개별 기업간의 협력에서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경제계 협력→양국 관계 복원 기여)했다.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측 단장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일한경제협회 아소 유타카 부회장은 "한일 자매도시 제휴 건수는 165건"이라며 "큐슈·한국경제교류회의, 호쿠리쿠·한국경제교류회의와 좋은 연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깊고 지속 가능한 한일 지역 간 교류를 지속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경제인은,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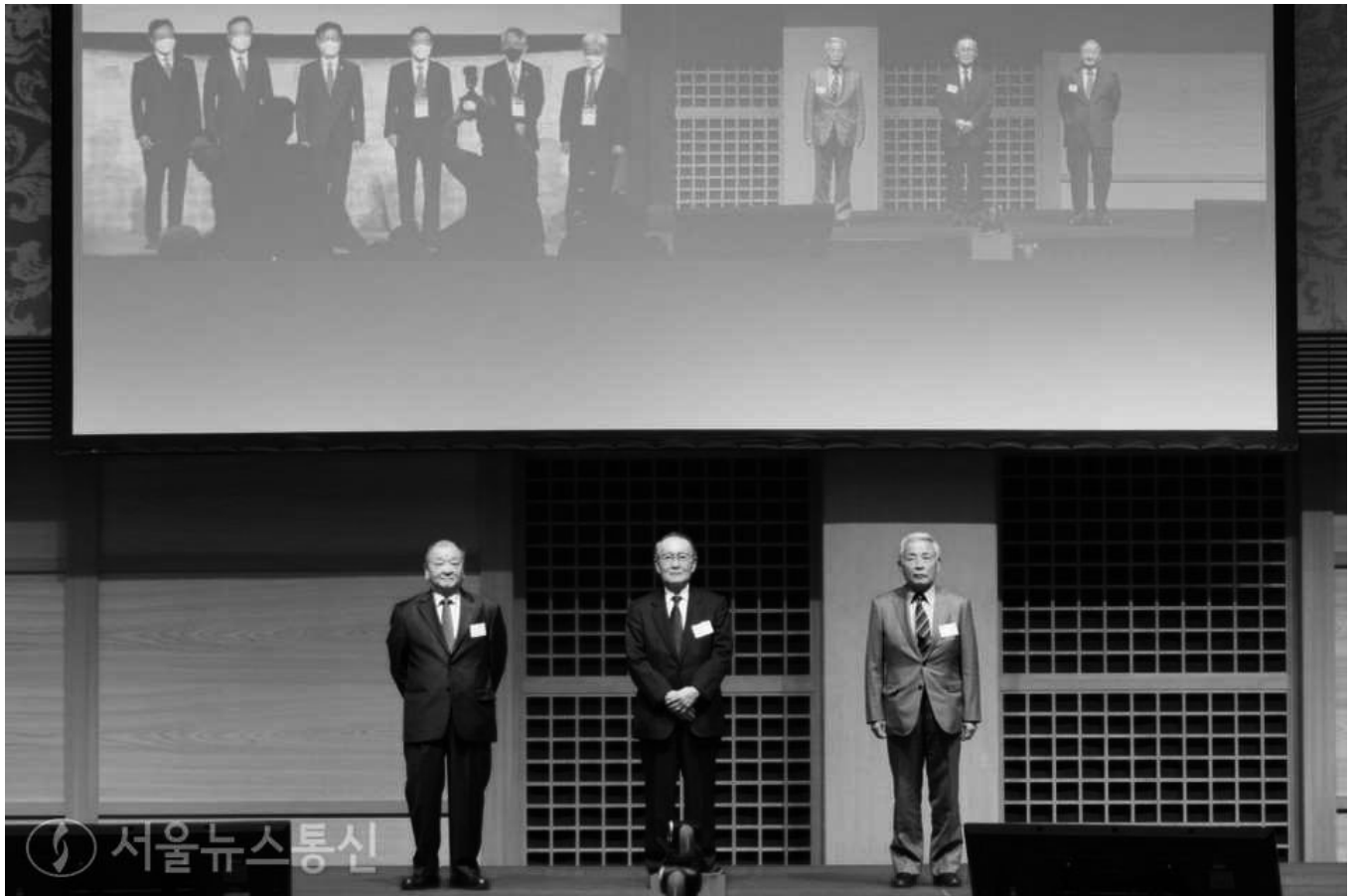
또한 국제공조는 중요하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는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0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개최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 한국측 인사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희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사진 제공 = 삼양홀딩스, 한일경제협회)



일본측 단체 사진. (왼쪽부터)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측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일본 단장, 개최인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기조연설). 출처 :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 구축 제안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 = 안지해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는 개별 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과 도쿄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최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양극화 심화, 고령화, 저출산, 고용률, 자살률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유동성을 활용 해야 한다"며 "개별기업의 이윤추구 및 개별 기업간의 협력에서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협력 사례로는 일자리 문제 해법 등을 제시 했다. 양국이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교류하는 것이다.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안지해 기자 [ajwo1133@newsworks.co.kr](mailto:ajwo1133@newsworks.co.kr)

## 韓·日경제인회의 개최..."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해 미래 창조해 나가자"

✎ 김현우 기자 | Ⓞ 입력 2021.11.02 16:54 | 📄 댓글 0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2일 온라인 연결을 통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과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1969년부터 해마다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정치·외교 관계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도 멈춤 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회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사진=연합뉴스

한국 측 단장인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고,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양국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협업은 경제계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탈탄소 사회로 전환, 디지털 전환 등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과제 해결은 간단하진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 한일 경제인, 멈춤없는 협력 지속...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논의

기사입력 2021-11-02 16:07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측 단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삼양홀딩스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오늘(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제면에 대한 영향은 이전보다는 완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경제인은 서울과 도쿄를 웹 회의 시스템으로 잇는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멈춤 없는 협력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회장은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은 모두,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3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영상 기조연설/SK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축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기조연설/ 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韓日경제인, 멈춤 없는 협력 다짐...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강길홍 기자 입력 2021.11.02 14:36

###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테마로 협력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측 단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일경제협회]

또한 김 회장은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

나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3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영상 기조연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강길홍 기자(size@inews24.com)

## 최태원 회장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 구축하자"



오유진 기자

입력 2021.11.02 17:47

### 양국 경제인들 협력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발표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일 서울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일경제인회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개별 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어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외교적인 관계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 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은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 개선이 진척되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미래 창조 ▲경제교류 확대 ▲공통과제 등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한 후 폐회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 대사, 최태원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 한·일 경제인, 온라인으로 한자리에...김윤 회장 “멈춤 없는 협력 지속”

이석호 기자 ✉ / 기사승인 : 2021-11-02 15:34:29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사진=한일경제협회 제공]

한일경제협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오키다도쿄호텔에서 각각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양국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난 1969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매년 만남을 지속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아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멈춤 없는 협력을 이어갔다.



▲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측 단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일경제협회 제공]



▲ (왼쪽부터)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사진=한일경제협회 제공]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양국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해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양국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모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는 접근방식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한국 측에서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은 사사키 미키오 회장을 비롯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홈 > 산업 > 세계

##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한일 경제인 교류에 정부 지원 필요”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일경제인협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양그룹>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한일 경제인 교류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윤 회장은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일경제인협회 회의에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외교경색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또 “한일 양국은 모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 김운 회장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해야"

팩스넷뉴스 김진배 기자    입력: 2021.11.02 15:27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서울-도쿄 온라인 연결 협력 강조



[팩스넷뉴스 김진배 기자] 김 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일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제53회 한국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의 협력으로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 양국 경제인은 1969년부터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의 위기에도 매년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날 열린 회의도 한·일간의 정치·외교 관계의 정체 상황에도 서울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해 경제인 간의 협력을 이어갔다.

한국 측 단장으로 참석한 김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 상황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세대의 문제는 현 세대에서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바가 많고, 공통의 난제에 직면해 있기에 가능한 최대의 협력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상당 부분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 세대가 풀어야만 하는 현안을 미래로 넘기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니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경제인의 유대감을 통한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이어 "한·일 양국은 모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비롯한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는 한국측은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김진배 기자 jbkim@paxnetnews.com

## 한일경제인 “멈춤없는 협력”...김윤 회장 “양국 경색 깨야”

✎ 김민준 기자 | Ⓞ 입력 2021.11.02 15:46 | 💬 댓글 0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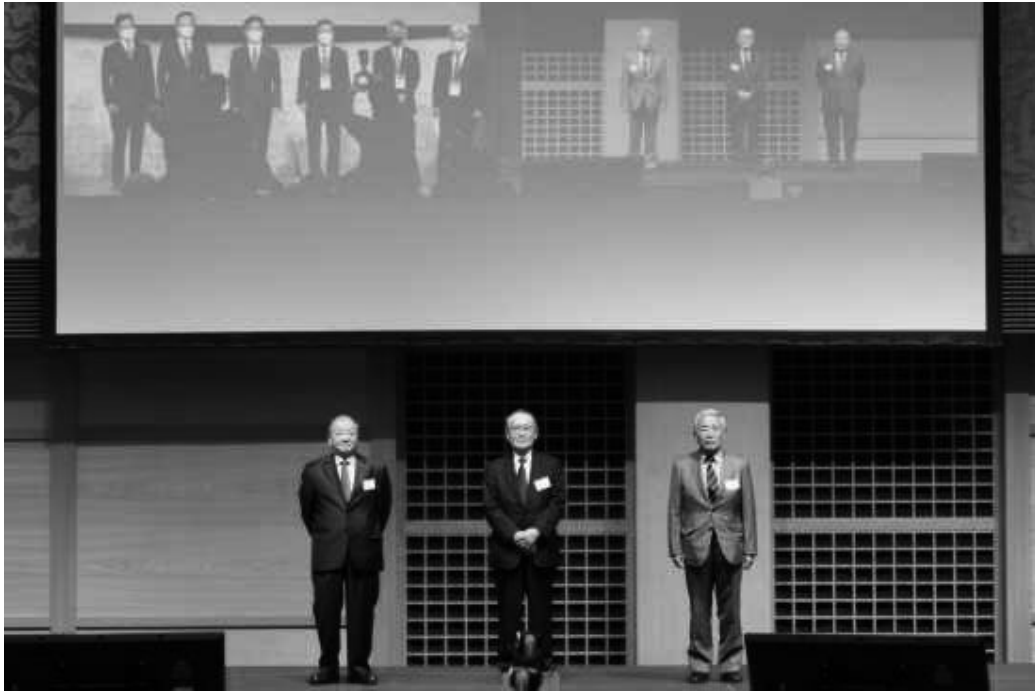
이어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3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영상 기조연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멈춤없는 협력’ 다짐

“양국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해야”...함께 창조하는 미래 논의



▲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식 기념 촬영. [사진=삼양홀딩스]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이 같이 밝히며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음에도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 아래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 정치·외교 관계가 아직 출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양국 경제인은 서울과 도쿄를 웹 회의 시스템으로 잇는 화상회의로 개최하며 멈춤 없는 협력을 이어갔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3회 회의는 한국 측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영상 기조연설·SK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게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강주현 기자 / sky\_jhkang, jhkang@skyedaily.com]

## THE FIRST

For Your First Business

# 한일 경제인, 멈춤없는 협력 지속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논의

2021.11.02 15:09 by 임한희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 윤 한국측 단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하여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면에 대한 영향은 이전보다는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지금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경제인은 서울과 도쿄를 웹 회의 시스템으로 잇는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멈춤 없는 협력을 이어나갔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하여,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

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3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측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측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영상 기조연설/ SK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측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기조연설/ 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출처 : 더퍼스트미디어(<http://www.thefirstmedia.net>)

##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외교경색 아쉽지만 전략적 협력 필요"

발행 2021.11.02 14:45 | 수정 2021.11.02 14:50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 한·일 경제인 서울-도쿄 온라인 연결... "함께 창조하는 미래 열자"



한일경제인회의 김윤 한국측 단장(삼양홀딩스 회장)

한국과 일본의 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의 입출국이 제한되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외교경색이 안타깝다"며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관심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자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양국은 국제공조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자"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양국 경제인의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국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열린 이번 회의엔 한국 측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인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 굿모닝경제

## 한·일경제인 "함께 창조하는 미래 열어가자"...공동 성명 채택

※ 유정원 기자 | ○ 입력 2021.11.02 18:41 | ◎ 수정 2021.11.03 09:32 | ▢ 댓글 0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화상 열어  
최태원 "한·일경제계 협력플랫폼 만들자"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운(삼양홀딩스 회장·사진위)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양홀딩스]

[굿모닝경제=유정원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 일상이 돌아오길 기대하며 양국이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과 도쿄 오후라도쿄호텔을 화상으로 연결해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회장을 비롯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후라도쿄 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1969년부터 해마다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 위기 등에도 중단없이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이어왔다.

양국 경제인들은 성명서에서 "한일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일 경제교류 확대와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와 사회 공헌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지만 국제 공조는 중요하다"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사진=삼양홀딩스]

이들은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도 "한·일 양국은 모두 탈탄소 사회로 전환, 디지털 전환 등 공동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과제 해결은 간단하진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사회 양극화, 환경 문제, 양국 교역 규모 축소 등을 거론하며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동안 사회는 양극화하고 국가 간의 장벽은 심화하며, 환경 전체가 파괴돼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의 복잡성을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 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린다. 출처 : 굿모닝경제 -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경제(<http://www.kpinews.co.kr>)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한일 경제인, 멈춤없는 협력 지속...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논의

김희정 기자 | 승인 2021.11.02 23:11

댓글 0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2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측 단장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면에 대한 영향은 이전보다는 완화됐다고는 해도 지금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경제인은 서울과 도쿄를 웹 회의 시스템으로 잇는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멈춤 없는 협력을 이어나갔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

로 연결돼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은 모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3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영상 기조연설/ SK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주일한국기업 등 98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축사), 아소 유타카 부회장(기조연설/ 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특별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무라카미 노부히코 자문위원회 부회장(도요타자동차 본부장), 주한일본기업 등 108명이 참석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 한일경제인 "함께 창조하는 미래 열어가자"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1.11.02 23:18 | 댓글 0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 화상으로 열어 공동 성명 채택  
최태원 상의회장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영상 기조연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양홀딩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2일 화상으로 만나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오길 기대하며 양국이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도쿄호텔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1969년부터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위기에 중단 없이 한일경제인회의를 이어왔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고,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도 "한일 양국은 모두 탈탄소 사회로 전환, 디지털 전환 등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과제 해결은 간단하진 않지만 서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경제계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노력은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해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한일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며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양국 정부에 요청했다. 출처 : 이코노텔링(econotelling)(<http://www.econotelling.com>)





## 日韓経済人会議「関係改善し脱炭素などで協力を」共同声明採択

2021年11月2日 20時08分

日韓関係

日韓関係が冷え込む中で、両国の経営トップが意見を交わす「日韓経済人会議」が開かれ、関係の改善を期待するとともに脱炭素などの分野で協力を進めるべきなど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ました。

ことしで53回目となる「日韓経済人会議」は、両国の経済交流の拡大を目指して1969年に始まって以降、1度も中断することなく開かれています。

今回の会議は、去年に続いて両国をオンラインで結ぶ形で行われ、日本側の会場にはおよそ100人が出席しました。

会議では、韓日経済協会のキム・ユン会長が（金※ユン）冷え込む日韓関係について「硬直した外交関係は皆が残念に思っている。懸案が次の世代まで続くのは正しいことではなく、日本の新しい内閣の発足をきっかけに解決が模索さ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と述べました。

これに対して、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が「日韓関係にいま改善の兆しは見られないが、日韓の経済人の相互理解は揺るぎなく固い絆で結ばれている」と強調したうえで、日韓の共通課題である脱炭素などでの連携が関係改善に向けて極めて重要だとの認識を示しました。





会議では最後に「日韓両国の政治・外交関係の改善を期待する」としたうえで、気候変動対策や脱炭素などで両国が協力を進め、円滑なビジネス往来を1日でも早く再開すべきなど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閉幕しました。

※ユンは「金」へんに「允」

ニュース > 経済

## 日韓関係は「最悪」だが...両国経済人は「揺るぎなく、固い絆で結ばれている」

2021/11/03 10:32

 この記事をスクラップする   

日韓両国の大手企業幹部らが集まる「日韓経済人会議」が2日、東京都内と韓国・ソウルの会場をオンラインで結んで開催された。

会議で採択した共同声明では、地球環境の保全や脱炭素化といった共通の課題を挙げ、両国の経済人が協力し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を宣言した。両国政府には、「円滑なビジネス往来が一日も早く再開されるよう、効果的な対策が実行されることを切望する」と求めた。日本側の団長を務めた佐々木幹夫・元三菱商事会長は「最悪と言われる日韓関係は改善の兆しが見えないが、経済人の相互理解は揺るぎなく、固い絆で結ばれている」と述べた。

# 韓国通商交渉本部長「保護貿易主義克服と多国間主義回復に向け韓日協調しなければ」

11/3(水) 10:50 配信 57



中央日報



産業通商資源部の呂翰九通商交渉本部長（右）が2日にソウル市内のホテルで相星孝一駐韓日本大使との面談に先立ち記念撮影をしている。

【写真 産業通商資源部】

韓国産業通商資源部の呂翰九（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が2日午後、韓日間の代表的な民間経済協議体である第53回韓日経済人会議に参加し、相星孝一駐韓日本大使と会い韓日間の経済交流拡大と協力案を話し合ったと明らかにした。

韓日経済人会議は両国の財界関係者が経済協力懸案を話し合う行事で、1969年から毎年開催されており今年で53回目を迎える。今回の会議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防止のためソウルのロッテホテルと東京のホテルオークラを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進められ、両国の財界関係者ら200人余りが参加した。

呂本部長は祝辞を通じ「50年余りにわたり韓日両国が主力産業分野での有機的な分業関係を基にお互いの成長を促進し飛躍的な発展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危機と急変するグローバル通商環境に対応するため両国間の協力をさらに強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呂本部長は両国間の未来指向的協力に向けた核心分野として、▽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安定化▽アジア・太平洋地域経済共同体発展▽気候変動に対応したグリーンエネルギー分野などを提示した。

呂本部長は相星駐韓日本大使と面会した席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と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リスクの状況の中でも日本の対韓投資が9月までの累積基準で前年同期比33.8%増の7.3億ドルに上るなど両国の経済協力が堅実に維持されていることを肯定的に評価するとともに、保護貿易主義克服と多国間主義回復に向け両国が緊密に協調していくべきだと強調した。その上で最近の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デジタル協定などアジア・太平洋地域の通商秩序変化に相互に協調して対応することを提案した。

呂本部長は合わせて、韓国企業関係者の日本入国が制限されており、両国企業間の交流が難しい状況であることを指摘し、日本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状況が改善されているだけに、企業関係者が円滑に移動できるよう日本政府の協力を要請した。

# 韓日経済人「共に創造する未来を開こう」

11/3(水) 12:03 配信 78



中央日報



あいさつをするキム・ユン韓日経済協会会長

韓国と日本の企業経営者らが2日、オンラインで「韓日、共に創造する未来」をテーマに協力案について議論した。

韓日経済協会はこの日、ソウル中区（チュング）のロッテホテルと東京のホテルオークラで第53回韓日経済人会議を開催した。韓日の企業経営者らは1969年から毎年、政治的問題や経済危機を中でも欠かさず韓日経済人会議を開いてきた。

韓国側団長のキム・ユン韓日経済協会会長（三養ホールディングス会長）は開会のあいさつで「経済人の自由な出入国が制限される新型コロナ危機に加え、まだ出口を見いだせない韓日間の外交問題が残念だ」とし「経済人が緊密に交流・協力できるよう両国政府の幅広い支援を期待する」と述べた。

続いて「世界経済は新型コロナパンデミック以前の水準を回復しようと努力していて、『ESG経営とデジタル転換』を進めている」とし「韓日両国は国際協調の重要性を認識し、長期間にわたり協力してきた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

をより一層強化し、未来を創造していくべき」と強調した。

日本側の佐々木幹夫団長（三菱商事元会長）も「日韓関係はいまだ改善の兆しが見えてこないが、両国経済人の信頼は強い連帯感で結ばれている」とし「両国の経済交流拡大・協業は経済界な競争力を高めて発展させるだけでなく、両国間の連帯感を強める」と述べた。

また「両国はともに脱炭素社会への転換、デジタル転換など共通した課題を抱えている」とし「こうした課題の解決は簡単なことではないが、互いに知恵と情報を共有して解決策を見いだすべき」と話した。

両国の経済人は新型コロナを克服して正常な日常生活が戻ることを期待し、両国が共に創造する未来を開こうという内容の共同声明を採択した。

声明は「韓日関係の改善には今後も多くの時間がかかるかもしれないが、少しずつでも前進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し「韓日経済交流の拡大と第3国での協業が、企業の利益にとどまらず、両国間の連帯強化と社会貢献に非常に重要だ」と明らかにした。

さらに「脱炭素など現代社会が直面した課題は多く、解決も容易でないが、国際協力は重要だ」とし「韓日経済人は長く協力してきた堅固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基礎に新しい未来を共に創造していく」と強調した。

# 11月に日韓経済人会議 今年もオンライン開催

2021/10/19 14:59



日韓経済協会は19日、両国の企業経営者らが経済連携を協議する「日韓経済人会議」を11月2日に開くと発表した。毎年開催しており、今回で53回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を防ぐため、昨年に続いて東京とソウルを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最大200人程度が参加する。

今年のテーマは「日韓、ともに創造する未来」。元徴用工や元従軍慰安婦の問題で政治的な対立が続く中、民間交流の強化を確認し、デジタル化や水素社会の取り組みなどでも情報を交換する。

## 脱炭素などで協調を確認 日韓経済人会議

2021/11/2 22:25



政治 | 政策 | 経済 | 金融・財政 | 国際 | 朝鮮半島



日韓経済人会議であいさつする日本側の佐々木幹夫団長（元三菱商事会長）＝2日、東京都港区

日韓両国の企業経営者らが経済連携を協議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2日、オンラインで開催された。日韓関係が国交正常化以来最悪とも言われる中、両国の関係改善に期待を示しつつ、脱炭素などの分野で「新しい未来をともに創造していく」など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閉幕した。

会議の冒頭、日本側の佐々木幹夫団長（三菱商事元会長）は「両国の経済交流の拡大や協業は経済界にとって極めて重要だ」と指摘。韓国側の金鉞（ユン）団長（三養ホールディングス会長）も「韓国と日本は多くの価値を共有し、共通の難題に直面している。協力が必要だが、現実には過去のことに縛られてほぼ停滞している」と訴えた。

いわゆる徴用工訴訟問題で、2018年に韓国最高裁が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て以降、両国の関係は急速に悪化。今年9月にも三菱重工業の資産に対し、韓国の裁判所が売却命令を出すなど関係改善の兆しは見えていない。

同会議は1969年から毎年、日韓交互に開催しており今回が53回目。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のため、昨年に続いて都内とソウルの会場を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実施した。

## 日韓関係改善に期待 経済人会議が共同声明

2021年11月02日20時40分



日本と韓国の財界人による日韓経済人会議が2日、東京とソウルを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開催された。元徴用工問題などで両国の政治関係の悪化が続く中、改善に向けて「少しずつでも進むことを期待したい」と明記した共同声明を採択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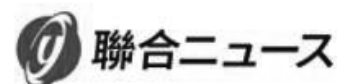
日本側の団長を務めた佐々木幹夫三菱商事元会長は、あいさつで「最悪と言われる日韓関係はいまだ改善の兆しが見えてこない」と指摘。韓国側団長の金※（※金ヘンに允）三養ホールディングス会長は「（日本の）新内閣発足を機に解決策がもたら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

声明は両国政府に対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で難しくなったビジネス上の相互訪問を早期に再開できるよう「効果的な対策」を講じることも要望した。

三菱商事の佐々木幹夫氏 = 2007年、東京都千代田区

## 韓日経済人会議 11月2日に開催

10/26(火) 14:22 配信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と日本の企業トップらが一堂に会する「韓日・日韓経済人会議」が11月2日、ソウルと東京をつなぐオンライン形式で開催される。韓日経済協会が26日、発表した。

会議は両国の経済協力の促進などを目的とし、1969年から毎年両国で交互に開かれてき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昨年に続き、今年も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開催する。

会議では韓日経済協会の金ユン（キム・ユン）会長と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が開会の辞を述べ、大韓商工会議所の崔泰源（チェ・テウォン）会頭らが基調演説する。両国の企業関係者の発表などを行い、共同声明も採択する。


昨年開かれた韓日経済人会議 = (聯合ニュース)

韓日経済協会側は「一度も中止することなく開催されてきた韓日経済人会議の伝統を続けていく」と述べた。

# 韓日経済人会議開催 SKトップが「協力プラットフォーム」提案

11/2(火) 19:59 配信



 聯合ニュース



ソウル市内のホテルで記念撮影する  
韓日・日韓経済人会議の出席者=2  
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と日本の企業トップらが一堂に会する「韓日・日韓経済人会議」が2日、ソウルと東京をつなぐオンライン形式で開催された。

会議は両国の経済協力の促進などを目的とし、1969年から毎年両国で交互に開かれてき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昨年に続き今年もオンライン開催となった。

両国の企業関係者らは会議で、韓日間の政治・外交関係が順調でない状況ながら、引き続き協力を図ることで一致した。

韓日経済協会の金ユン（キム・ユン）会長（三養ホールディングス会長）は開会の辞で、新型コロナにより企業関係者の往来が制限されている状況と韓日間の外交の行き詰まりを誰もが残念に思っているとしながら、「企業関係者が緊密に交流・協力できるよう、両国政府の幅広い支援を期待したい」と述べた。

また、世界でESG（環境・社会・企業統治）経営やデジタル転換への取り組みが進んでいることを挙げ、「韓日は国際協力の重要性を認識し、長年協力してきた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を一層強化して未来を創造していくべきだ」と言葉に力を込めた。

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三菱商事元会長）は、両国の経済交流の拡大や協業は経済界の競争力を高め、発展させるだけでなく、両国間の結びつきを強くすると語った。

米国に出張中の大韓商工会議所の崔泰源（チェ・テウォン）会頭（SKグループ会長）はビデオ演説で、韓日経済界の「協力プラットフォーム」構築を提案した。

崔氏は社会の二極化、環境問題、両国の貿易額縮小などを挙げながら、「各企業が利益を追求している間に社会は二極化し、国同士の壁は深刻化し、環境は破壊されつつある」と指摘。「直面した社会・経済問題の複雑性を踏まえると、現在のような『個別企業間の協力』だけでは国レベルの問題を解決するのに限界がある」と説いた。その上で、協力の幅と深さを広げ、両国経済界全体の持続可能な関係を構築していこうと呼びかけた。

会議には金氏や崔氏、産業通商資源部の呂翰九（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姜昌一（カン・チャンイル）駐日韓国大使、サムスン電子の李仁用（イ・イニョン）社長、世亜製鋼の李輝寧（イ・フィリョン）副会長、SKの張東鉉（チャン・ドンヒョン）社長、在日韓国企業の関係者ら、韓国側から政界・財界関係者98人が出席した。

日本側からは佐々木氏や相星孝一・駐韓日本大使、日韓経済協会の麻生泰副会長（麻生セメント会長）、上田勝弘副会長（大垣精工会長）、岡素之副会長（住友商事特別顧問）、古賀信行副会長（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特別顧問）、井水治博副会長（日刊工業新聞社社長）、池田正己副会長（ホテルオークラ東京会長）、在韓日本企業の関係者ら108人が参加した。

# 日韓両国の経済業界人が一堂に会する…「新たな未来創造・経済交流を拡大しよう」＝韓国報道

11/2(火) 23:31 配信 112



日韓両国の経済業界人が一堂に会する…「新たな未来創造・経済交流を拡大しよう」＝韓国報道（画像提供：wowkorea）

日韓両国の経済業界人が新しい未来創造、経済交流の拡大、共通課題などに対する協力を強化しようという内容の声明を発表した。

日韓経済人連合会は2日、ソウルのロッテホテルソウルで「第53回 日韓経済人会議」を開き、「日韓の経済交流の拡大および第三国での協業などが、企業利益に止まらず、両国間の絆の強化、そしてまた関連地域への貢献も含めて非常に重要だ」とし、“日韓が共に創造する未来”を切り開こうと口をそろえた。

日韓両国は特に「地球環境や脱炭素など現代社会が直面している課題は多く、解決も容易ではない」とし、このような面についても国際協力は重要であり、「日韓の経済業界人は長い間協力してきた堅固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基に新しい未来を共に創造していこう」と意を共にした。

両国政府に対しては、ビジネスにおいて円滑な行き来が一日も早く再開す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効果的な対策が実行されることを切望すると訴えた。

「日韓経済人会議」は両国の相互発展のために経済・文化交流などについて話し合う場で、1969年から中断することなく毎年両国が交互に開催している。新型コロナ拡散の影響で、今年はソウルと東京の会議場をリモート形式で繋ぐ「非対面会議」形式で進められた。韓国側からはキム・ユン会長を団長に、韓国産業通商資源部通商交渉部のヨ・ハング部長、カン・チャンイル駐日韓国大使、大韓商工会議所およびSKグループのチェ・テウォン会長、サムスン電子のイ・イニョン社長、セア製鋼のイ・フィリョン副会長、SKのチャン・ドンヒョン代表取締役社長、TCCスチールのチョ・ソクヒ副会長、在日韓国企業の関係者など98人が参加した。

日本側からは佐々木幹夫会長をはじめ、相星孝一駐韓日本大使、麻生泰副会長、上田勝弘副会長（大垣精工会長）、岡素之副会長（住友商事特別顧問）、古賀信行副会長（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特別顧問）、井水治博副会長（日刊工業新聞社社長）、池田正己副会長（ホテルオークラ東京会長）、在韓日本企業の関係者など108人が参加した。





## 日韓両国の経済業界人が一堂に会する…「新たな未来創造・経済交流を拡大しよう」＝韓国報道

2021年11月2日 23:31配信 Copyrights(C) Edaily wowkorea.jp 84

日韓両国の経済業界人が新しい未来創造、経済交流の拡大、共通課題などに対する協力を強化しようという内容の声明を発表した。

日韓経済人連合会は2日、ソウルのロッテホテルソウルで「第53回 日韓経済人会議」を開き、「日韓の経済交流の拡大および第三国...

## 11月に日韓経済人会議 今年もオンライン開催

2021/10/19 14:59

[政治](#) | 
 [政策](#) | 
 [国際](#) | 
 [朝鮮半島](#)

[コロナ緊急事態](#)



も情報を交換する。

日韓経済協会は19日、両国の企業経営者らが経済連携を協議する「日韓経済人会議」を11月2日に開くと発表した。毎年開催しており、今回で53回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を防ぐため、昨年が続いて東京とソウルを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最大200人程度が参加する。

今年のテーマは「日韓、ともに創造する未来」。元徴用工や元従軍慰安婦の問題で政治的な対立が続く中、民間交流の強化を確認し、デジタル化や水素社会の取り組みなどで

## 내달 2일 한일경제인회의 최태원·김윤 회장 등 참석

박윤구 기자 | 입력 : 2021.10.22 17:15:1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고 한일 간 외교관계 경색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22일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과 호텔 오쿠라도쿄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한일산업기술페어 2021이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상호 발전을 위해 경제·문화 교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9년부터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는 서울과 도쿄 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겸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다.

[박윤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